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투스 평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c@gmail.com

제1독서 지혜 11,22-12,2
 화답송 시편 145(144),1-2.8-9.10-11.13ㄹ-14(◎참조)

제2독서 2테살 1,11-2,2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9,1-10

성가

- 입 당 31 이 크신 모든 은혜
- 예물준비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 성 체 151 주여 임하소서
- 파 견 300 (1절-3절) 사제의 마음

(후렴) 저의 임금 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가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가사 박 현진 스테파노 허 향연 소화데레사 김 진형 치프리야노 김 학순 이 정진 안토니오 이 순영 부 기자 헬레나, 이 태환 바오로 강무강 이정진 안토니오, 박현진 스테파노 이 종란 크리스티나	봉헌 김 보나 익명 이 경자 율리안나 박 혜화 이 지훈 아녜스 이 지훈 아녜스 이 정현 헬레나 강 안드레아 한 서희 데레사
생가사 김 진열 가롤로 신부님 영명일 김 진열 가롤로 신부님 영명일 김 진열 가롤로 신부님 영명일 백 승훈 야고보 이 정주 소화 데레사 양 세안 이 주윤 카타리나 이 정근 미카엘, 이 형규 리오 여 동건 루카 첫 영성체 안 선정 마리안나 김 영희 베드로, 이 명숙 루시아 김 유화 데레사 이 병국 요한, 이 진자 세실리아 배 인순 아가다, 김 락분 루시아 박 기목 알버트, 박 민재 아그네스	봉헌 박 알버트, 박 아그네스 김 효주 수녀 연령화 익명 익명 양 미숙 마리아 김 승범 프란치스코 이 정현 헬레나 이 영애 레지나 연령화 김 유화 데레사 김 진수 대건 안드레아 강 안드레아 강 안드레아 한 서희 데레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1	복사2
10월30일	백이백 아오스딩	정은철 프란치스코	이지연 안젤라	이지연 안젤라	민덕미 안젤라	한서희 데레사	김민규 요셉
11월06일	조소연 마르티나	민완준 필립보	정유진 콘솔시아	정유진 콘솔시아	김영숙 카타리나	한서희 데레사	김민규 요셉

김 진열 '가롤로' 신부님 영명 축하

신부님 영명일을 맞아 맨하탄 교우들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담아 축하드립니다.



"사제의 맘은 예수 맘 우리를 애써 돌보시며
어디서나 길 잃은 양 주님께 인도해 주시네" ♪ ♪

신부님 영명 축하식과 축일 떡 나눔

일시 : 오늘(10/30) 미사 후
장소 :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대상 :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받으실 분 ·문의 : 347.834.5784
첫모임 : 오늘(10/30) 오전 11시 Korean Conf.(참석필수)
교리시작 : 11/6(일) 오전 11시 교육관 3A

견진성사 교리반 모집

대상 : 2019년 이전 세례받은 분 ·문의 : 347.834.5784
첫모임 : 오늘(10/30) 오전 11시 Korean Conf.(참석필수)
교리시작 : 11/6(일) 오전 11시 Korean Conf.

11월, 위령성월에 가족 묘지에서 봉헌하는 미사

위령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신부님과 함께 가족 묘지에 가서 미사 봉헌하기를 원하시는 교우분들은 2층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Tom 신부님과 드리는 위령미사

아씨시 프란치스코 성당에서는 가족, 친구, 지인을 위한 위령의날 추모 미사에 초대합니다. 미사 전 선종하신 이의 사진을 가지고 오셔서 성소에 안치합니다. 11월 2일(수) 오후 7시

청년성서모임 2022년 가을학기 그룹원 모집

대상 :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은 청년 ·모집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모임장소 : 다미아노 홀, 신청마감: 10월 29일(토)
첫모임: 11월 6일(일) 오후 1시(참석 필수), 장소: 다미아노 홀
개강미사 : 11월 12일(토) 오후 6시
문의 : 대표봉사자 김진섭 야고보 201.912.7577
신청링크 : <https://forms.gle/iqP4g7iRn7eGgXfe9>

교무금, 미사예물등 접수

오늘(10/30)부터 미사후 다미아노 홀에서 받습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 2. 온라인 주보의 경우, <우리들의 정성> 코너는 삭제되며, 성당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인쇄본 주보에만 게시됩니다.
- 3.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실 경우, 보내실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송금 후 수녀님 전화 : 347-834-5784 로 연락 바랍니다.
- 4. "기부" 버튼을 클릭하시면, 한인공동체 교무금이 아니라, 미국 본당을 위해 사용됩니다.

우리들의 정성	
교 무 금	Cash \$640 안상민, 장철순, 박승민, 이지훈, 이영애
	Check \$550 송명근, 강명옥, Ella Kwon
특별헌금	Cash \$
합 계	\$1,190

- 1. 체크로 보내실 경우 - 수취인은 꼭 써 주세요.
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체크 보내실 주소 : Carolo Kim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 2. 온라인으로 보내실 경우
은행명 : Chase Bank
수취인 :
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Korean Ministry
Routing no / ABA no : 021000021
Checking Account no : 339500161165
은행주소: 1260 Broadway, New York, NY 10001

목주기도 성월 기도

◆ 성모 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하소서.
-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 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마리아와 함께 이신비를 묵상하며
목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단체모임 안내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Conf. Rm(2F)
요셉회	셋째 주일 11:00	교육관 1B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교육관 1B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아래성당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Conf. Rm(2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 18:00	Conf. Rm(2F)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	Conf. Rm(2F)
'신명' 풍물패	2,4 주일 14:00	교육관 3A
청년회	매주 주일 10:30	교육관 2A
하늘처럼 성가대	매주 주일 08:30-13:30	교육관 3B
예비신자 교리반	매주 주일 11:00	교육관 3A
견진성사 교리반	매주 주일 11:00	Korean Conf.
구세주의 모후 Pr.	매주 주일 08:00	Conf. Rm(2F)
우리 즐거움의 원천 Pr.	매주 주일 10:30	교육관 2D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
예수성가정회 FYMNY	넷째 주일 11:00	-

2022년 10월 교황님 기도지향

모든이에게 열린 교회

“언제나 복음에 충실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연대와 형제애와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 공동합의성을
실천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해주세요

투병 중이신 분

“가장 작은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5

- | | |
|----------------|------------|
| 김순한 (루시아) | 김옥지 (아가다) |
| 이경희 (미카엘라) | 김동희 (헬레나) |
| 정창동 (폴리나) | 지군자 (스테파니) |
| 진정은 (마리아) | 이진자 (세실리아) |
| 고종호 (마태오) | 이병국 (요한) |
|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 박명순 (모니카) |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ISC NEW YORK
International Student Consulting
졸업/OPT 후 진로고민 및
진학/취업/자기소개서/면접준비 무료상담
iscnewyorkmetro@gmail.com
1-917-386-7405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원조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광고주를 찾습니다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루카 19장 1-10절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던 자캐오는 꽤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낯선 예언자를 환영하는 자리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환영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캐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꽤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아니 그분의 눈에 띄기 위해 나무에라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비참함과 부족함을 알고 있기에 그분이 나의 그 어려움을 이해해주실 분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고 그것을 진심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은 자캐오의 집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진리에, 영적인 갈증에 애태우던 자캐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자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는 예수님을 기쁘게 간직하였습니다. 자캐오의 태도와 행동이 변한 것은 그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부끄러움을 잊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겪은 사람은 대범해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캐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느님의 사랑은 때로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또 기대하지 못한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그 기쁨의 열매는 통회이며, 애덕의 실천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어무르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입니다!

"묵주기도가 궁금해요"

묵주기도는 가톨릭 신자에게는 가장 익숙하면서도 친근한 기도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알쏭달쏭하게 다가왔던 '묵주기도'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세례 받지 않았는데 묵주반지를 꺼도 되나요?

세례 받지 않은 예비신자도 '묵주기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묵주반지를 꺼도 큰 문제가 없다. 묵주반지나 묵주팔찌 등은 '세례받았다'는 표징이 아니라 '기도하는 도구'로써의 끼는 것이기에 사용에 있어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예비신자 역시 묵주반지나 팔찌 등을 착용해도 무리가 없다.

묵주를 팔찌처럼 사용하거나, 차에 걸어놓아도 되나요?

묵주를 팔찌처럼 손목에 감고 다니거나, 차에 걸어놓는 신자들이 많다. 묵주를 팔찌처럼 사용할 때 장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자동차에 묵주를 거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묵주는 축복받는 건가요, 축성받는 건가요?

묵주의 경우에는 축복이 더 맞다. 축성은 일반적인 사물이나 사람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한다는 한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흔히 사제가 미사 중 빵과 포도주를 성체와 성혈로 축성한다고 이른다. 축복은 하느님의 복을 빌어주는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폭넓은 용어로, 묵주는 '축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다.

묵주는 꼭 축복받고 써야 하나요?

묵주는 실생활에서 신자들의 신심 생활을 돕는 도구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축복을 통해 은총을 받을 수 있고, 영적인 효력을 얻을 수 있기에 영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

오래되거나 낡은 묵주, 사용하지 못하는 묵주는 어떻게 하나요?

낡았다고, 부서졌다고 버리기보다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묵주를 선물 받아, 여러개의 묵주가 있다면 새로운 것을 사용하기 보다는 묵주가 필요한 이웃이나, 세례 받은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리가 불가할때 교회가 전통적으로 취해온 방법 중 하나는 땅에 묻는 방법이다.

김 효석 신부(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윤 종식 신부(가톨릭 대학교 신학대학 전례학 교수)